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美 코로나 19 확산에 달러 하락 압력 커진다
- ◇ (초점)-韓 경제 3 분기 반등? 중국만 보면 안 되는 이유
- ◇ (초점)-개인투자자 달러 매수 열풍, 원화 강세 차단하며 위력 확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트럼프타워 근처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내용의 벽화에 페인트칠을 하려는 사람을 구인하다가 경찰관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로이터/앤드루 켈리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24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01.5	0.3%	-3.8%	-3.5%	유로	1.1654	2.0%	4.0%	-2.3%
100엔 대비	1,131.9	-0.7%	-6.1%	-4.4%	엔	106.12	0.8%	2.3%	0.9%
유로 대비	1,400.2	-1.8%	-7.6%	-1.3%	위안	7.0040	-0.2%	-0.6%	-1.3%
위안 대비	171.16	0.5%	-3.2%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6,469.89	-0.8%	-7.2%	22.3%
코스피	2,200.44	0.0%	0.1%	7.7%	나스닥	10,363.18	-1.3%	15.5%	35.2%
코스닥	794.80	1.5%	18.7%	-0.9%	S&P500	3,215.63	-0.3%	-0.5%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42.17	0.2%	-1.9%	15.8%
국고채 3Y	0.799%	-1.3bp	-56.1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049%	-3.1bp	-43.1bp	-40.4bp	미국채 2Y	0.149%	0.6bp	-141.2bp	-93.7bp
국고채10Y	1.305%	-4.3bp	-37.8bp	-26.5bp	미국채 10Y	0.587%	-3.6bp	-132.3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1.29	1.7%	-32.4%	34.5%	한국 5Y	23.4bp	-0.2bp	2.4bp	-17.0bp
금(현물)	1,900.98	5.1%	25.3%	18.3%	일본 5Y	17.1bp	-0.1bp	-0.7bp	-4.0bp
TR상품지수	2,337.92	1.6%	-6.0%	4.8%	중국 5Y	43.2bp	0.2bp	12.6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7월 27일(월)>

- 기재부 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 출석(11:00)

<28일(화)>

- 한은, 2/4분기중 외국한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12:00)
- 한은,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29일(수)>

- 한은,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7:30), 1차관 브리핑(10:30)
-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10:00)
- 기재부, 2차관 투자플 운영위원회(16:00)

<30일(목)>

- 한은,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8월 국고채 발행 계획(17:00)

<31일(금)>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 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201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12:00)
- 한은,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8월 1일(토)>

- 산업부, 7월 수출입(09: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7월 27일(월)>

- 일본, 일본은행 14-15일 정책 회의 주요 의견 요약 공개 (08:50)
- 중국, 6월 산업이익 (10:30)
- 유로존, 6월 총 유동성(M3) 증가율 (17:00)
- 유로존, 6월 가계대출 (17:00)
- 미국, 6월 내구재주문 (21:30)
- 미국, 7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23:30)

<28일(화)>

- 미국, 5월 케이스실러주택가격 (22:00)
- 미국, 7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29일)

<29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6월 도매·소매재고 (21:30)
- 미국, 6월 잠정주택판매 (23:00)

<3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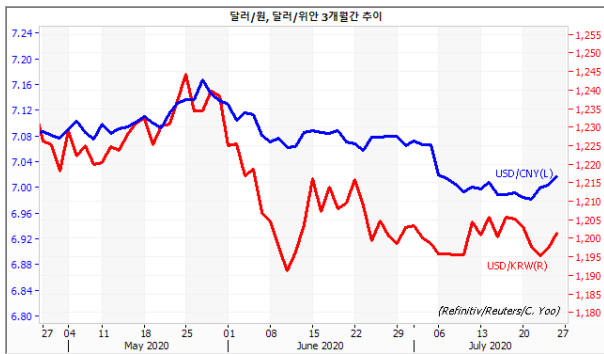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03:00), 연방준비제도 의장 기자회견 (03:30)
- 일본, 6월 소매판매 (08:50)
- 유로존, 7월 기업환경·경기체감지수 (18:00)
- 유로존, 7월 소비자신뢰지수 (18:00)
- 유로존, 6월 실업률 (18:00)
- 미국, 2분기 GDP 잠정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31일(금)>

- 일본, 6월 실업률 (08:30)
- 일본, 6월 산업생산 (08:50)
- 중국, 7월 공식 제조업·비제조업 PMI (10:00)
- 유로존, 7월 소비자물가지수 (18:00)
-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 (18:00)
- 미국, 6월 개인소득 (21:30)
- 미국, 6월 근원 PCE 가격지수 (21:30)
- 미국, 2분기 고용비용 (21:30)
- 미국, 7월 시키고 PMI (22:45)
-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최종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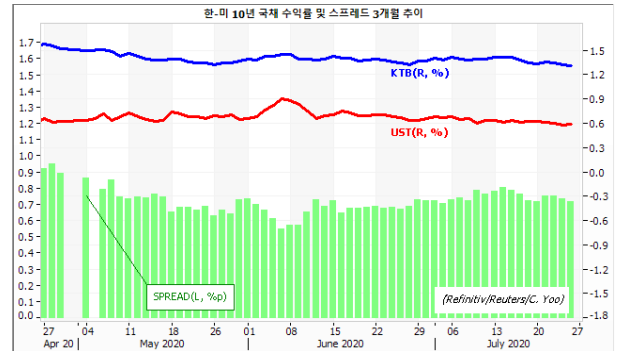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중 갈등 전개 양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회의 결과 등을 주목하며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거래범위는 1190 원-1215 원이다.
- 미국과 중국 간 전방위적 갈등 국면 속에서 위험 자산과 통화 강세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정도는 크게 떨어져 있지만 위안화 약세가 가팔라진다면 원화는 얼마든지 위안화와 보폭을 맞추는 시도에 나설 수 있다.
- 이에 이번 주 원화는 미-중 갈등 사태와 이에 따른 위안화 반응을 살피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한국시간 30일 오전 3시 발표) 또한 주요 변수다. 이번 회의에서 큰 정책 변화는 기대되지 않지만 미시적인 정책 대응이 뒤따를지가 관건이다.
- 연준 회의 이후 달러 약세 모멘텀이 더욱 확대될지 그간 깊었던 달러 약세에 대한 과격한 포지션 정리가 뒤따를지가 원화에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편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주요 기업 실적이 나올 예정으로 이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 주목할 대외 경제지표로는 미국 2분기 GDP, 중국 7월 제조업 PMI 등이 있다.
- 1200 원 중심의 갑갑한 박스권 안에 갇히며 변동성마저 크게 축소된 원화, 이번 주에는 대외 여건에 따라 장 중 보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발 대형 이벤트와 증시 움직임 등과 맞물려 움직일 전망이다.
- 주 후반부터는 다음주 입찰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되며 약세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대내외 증시가 시험대에 오른다. 일단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능할 대외 이벤트가 관건이다.
- 어떤 재료가 나와도 잡아먹을 한 방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경제가 8월 이후에 '소득 절벽'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라는 걸 대부분 시장참가자들은 알고 있다. 관건은 가격이 얼마나 반응하느냐다.
- 28~29 일에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기준금리 동결은 확실한 상황이다. 시장에선 9월 정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 통제 정책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19 확진자 추이와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갈등 등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할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부수적인 건 3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지표다. 미국의 2분기 GDP는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나빠지느냐가 큰 이슈가 되진 않을 듯하다. 시장은 여전히 '굴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한국은행은 29일에 7월 소비자동향을 30일에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한다. 통계청은 31일에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분석)-美 코로나 19 확산에 달러 하락 압력 커진다

뉴욕 (로이터) -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및 각국 경제 전망 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감소로 최근 몇주간 달러 하락세가 가속화됐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8% 하락해 2018년 이후 최저치 부근을 나타내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 달러 순숏포지션은 2년여래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마젠 이사 TD 증권 선임 외환 전략가는 "달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 시점에서 달러 약세 심리는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하락 압력 요인은 다양하다. 지난 수년간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국가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이번주 초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확정 지었고, 코로나 19 억제에도 대체로 성공했다. 한편 미국 많은 지역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해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거의 소멸시켰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미국과 유럽의 실질 GDP 성장률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유럽이 5.2%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미국은 2.5%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 가치는 올해 저점에서 9% 절상됐다.

리처드 벤슨 밀레니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공동수석투자담당은 "투자자들은 미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것이 달러에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밀레니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5월부터 달러 약세와 유로 강세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그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수익률 격차를 줄였다.

미국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자가 늘었다. 금값은 올해 23% 가량 상승했다.

고수익 신흥시장에서의 매수세도 늘었다. MSCI 신흥국통화지수는 저점에서 4.5% 상승했다.

이사 TD 증권 전략가는 "코로나 19 위기 대처에 있어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며 "그곳들이 더 빨리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폴 시에나 FICC 기술적 분석 담당 수석 전략가는 이달 초 달러 가치 하락에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데스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데스 크로스 발생 직후를 보면 1980년 이후 9번 중 8번은 일정 기간 달러 약세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 수출업체들에게는 안도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 미국 수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순익을 달러로 바꿀 때도 비용이 적게 든다.

물론 모두가 달러 약세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몸트칠 포자르리브 BNP 자산운용 외환팀장은 시장이 유럽의 코로나 19 억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 역시 달러 베팅을 줄였다.

그는 "현 추세에 대항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초점)-韓 경제 3 분기 반등? 중국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 경제가 2 분기에 바닥을 찍고 3 분기부터 급반등할 수 있을까?

2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인 1998 년 이후 22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는데도 낙관론을 펴는 이들은 중국 경제의 반등을 예로 든다. 코로나 19 발발 이후 1 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0% 감소했던 중국 경제가 2 분기에 11.5% 급반등한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전철을 쫓아 3 분기에 회복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신흥국 경제 위축을 감안할 때 2 분기 중국 경제 반등을 3 분기 한국 경제의 가능자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역시 큰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분기 韓 경제 추락..'중국 따라 반등' 낙관론도

한국은행이 23 일 발표한 2020 년 2 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2 분기 한국 GDP 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1998 년 1 분기(-6.8%) 이후 22 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9%로 1998 년 4 분기(-3.8%) 이후 최악이다.

지난 1 분기(전기 대비 -1.3%)에 이어 GDP 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국내 경기는 기술적인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국내 경제가 2 분기에 바닥을 찍고 3 분기에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이같은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 분기를 바닥으로 3 분기에는 상당 부분 경기 반등이 가능하다"며 "추경, 한국판 뉴딜 등 정책 효과와 2 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 19 가 진정되는 3 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역시 이날 2 분기 GDP 설명회에서 "중국 경제가 2 분기에 급반등했는데 코로나 19 가 진정되면 경기가 어느 정도 급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수출 실적을 봐도 6 월에는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고 최근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3 분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 수출 비중 25%..중국 경제 회복에 '기대감'

2 분기 성장을 추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57 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수출 때문이다. 2 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기비 -16.6%로 1963 년 4 분기(-24%) 이후 57 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의 움직임을 하반기 한국 경제의 이정표로 보려는 시각은 한국 수출에서의 중국 비중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 수출에서의 중국 비중은 25%에 달해 전체 국가 중 가장 컸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19 여파에서 빠르게 회복할수록 국내 수출의 회복 속도 역시 빨라져 GDP 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키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 6 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수출 물량 역시 3 개월 만에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상황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바로 수출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부각됐을 때도 기업들이 일단 주문을 받고 배에 실어놓은 것들은 내보내니까 지표가 바로 악화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수요가 감소하고 주문이 줄면서 시차를 두고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차를 감안할 때 중국 경제의 반등은 3 분기에 국내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외 신흥국, 코로나 19 사태 악화 변수..빠른 수출 반등 어려울 듯

하지만 3 분기 한국 경제가 중국처럼 반등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국 외 지역에서 3

분기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19의 확산 흐름 때문이다.

특히 인도와 브라질 등 방역 정책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들 신흥국의 비중이 32%에 달해 전체 선진국 비중(43%)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경제 봉쇄 완화를 적극 추진했던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코로나 19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른 경제 봉쇄 완화가 코로나 19 재확산을 유발하면서 경기 침체의 기간과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교란되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수출 전망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기지를 중국 외 지역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만과 한국,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중간재를 중국으로 보내 그곳의 최종조립라인을 거쳐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위상이 하락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장 중국 경제의 빠른 반등을 보고 한국 경제 역시 비슷한 반등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미국과 EU,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는데 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며 "우리는 중국만 보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의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국내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체인 문제의 경우 추세는 보고 있지만 아직 계량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도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중국 하나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초점)-개인투자자 달러 매수 열풍, 원화 강세 차단하며 위력 확대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달러 매수 열풍에 달러/원 수급 중심점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불확실성에도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 최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이례적으로 동반 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월 저점 대비 50% 이상 급등한 가운데 그와 동시에 금 현물 가격도 올해 들어 20% 이상 올라 사상 최고치를 넘보고 있다.

이처럼 애매한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서도 달러 약세와 증시 강세 요인은 그간 원화 강세를 견인하는 주된 축이었다. 하지만 최근 원화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환율은 1200 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10원 범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장참가자들은 달러/원 하단 지지력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 7월 개인 달러 예금 3년래 최대폭 증가..잔액 역대 최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월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말 대비 36.1억달러 증가한 845.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일반기업의 결제 대금 예치와 개인의 현물환 구매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체별로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전월비 21.9억달러, 14.2억달러 각각 늘었는데 특히 개인 달러 예금 증가 규모는 근 3년 만의 최대이고, 잔액 기준으로 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다 6월 들어 하락하다 보니 개인들이 달러를 매수했다"면서 "주로 요구불 예금 중심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자산 수요 유인이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7월 들어 재개된 해외주식투자 열풍

이에 더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풍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20일까지 외화 주식 순매수(매수-매도) 결제 규모는 약 87억달러로 이 중 7월에만 21억달러가 몰렸다. 이는 지난 4월 23억달러 이후 규모가 가장 크다. 투자대상 지역은 미국이 70%를 차지한다.

이는 연기금 등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의 증권투자 결제금액이 주를 이룬다.

한 증권사 FX 운용팀장은 "시장이 출렁였던 4월 이후 이달 들어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관련 달러 수요가 확연히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투자는 미진한 반면 기관투자자는 제외하더라도 개인 달러 수요가 최근 더해지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행진은 이달 포함해 6개월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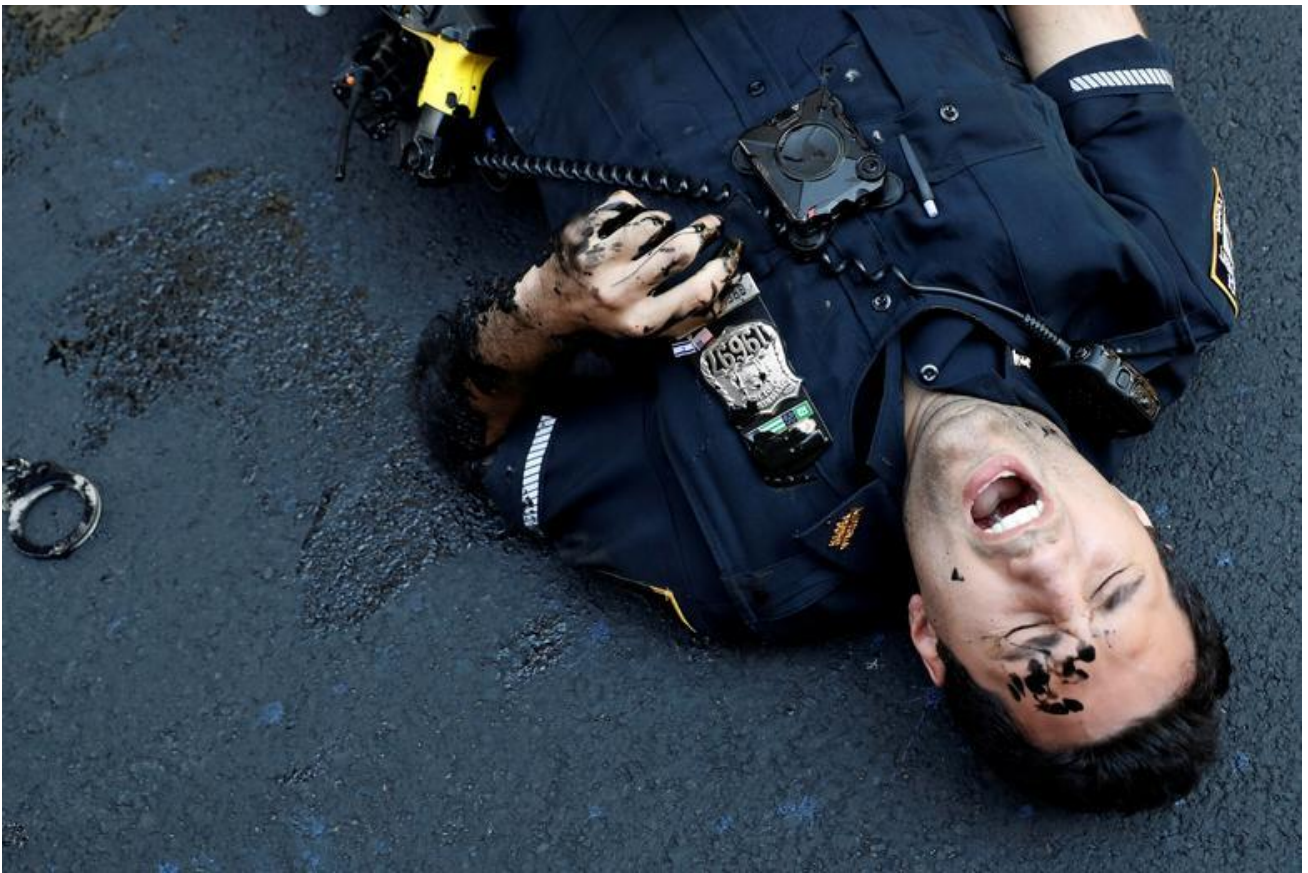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 19 타격을 받은 한국 수출 부진 영향에 달러 공급이 헐거워지면서 달러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관련 수급이 줄어 상대적으로 역내 결제가 우위를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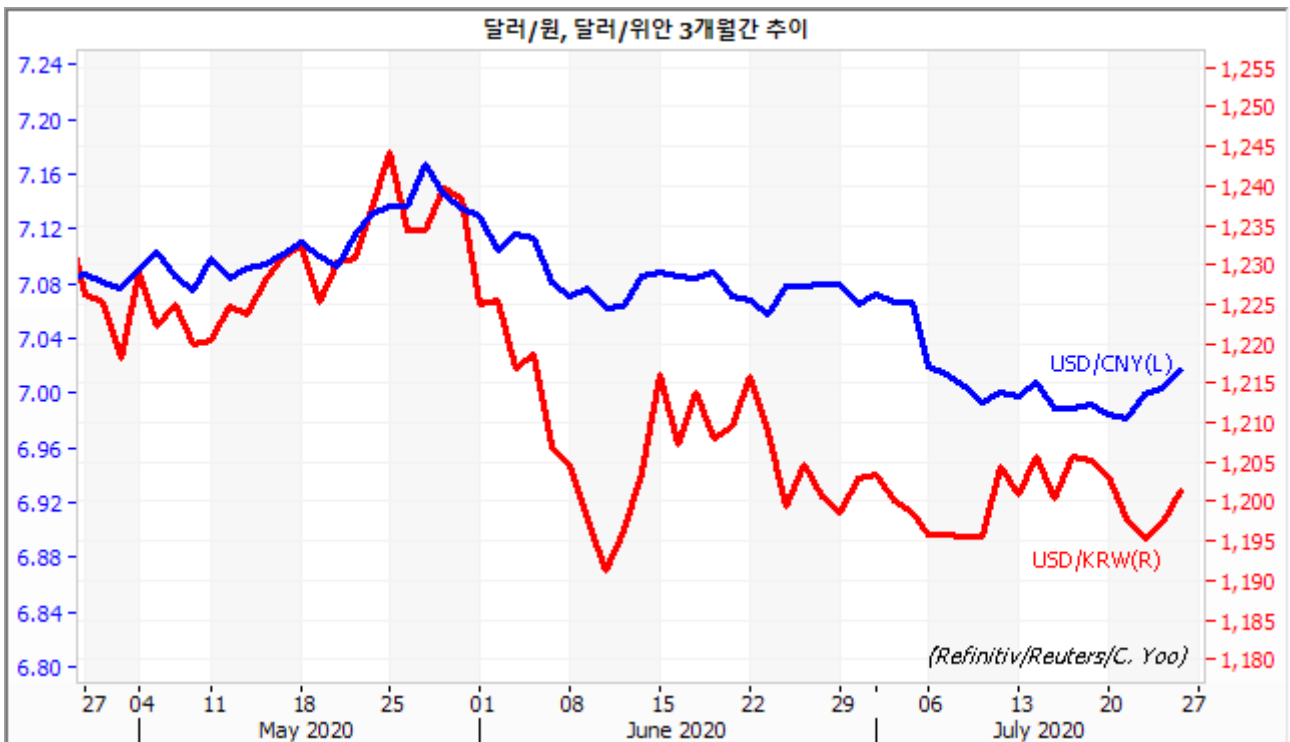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1.5억달러 적자였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경상 및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외인 주식 자금 유입이 제한되는 가운데 21억달러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적지 않은 규모"라면서 "최근 다소 가볍다고 느껴지는 환시 수급의 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